

# 영어 부사(구) 분석

손 숙 자

(서강정보대학)

Sohn, Sook-ja. 1998. An analysis of English adverbials. *Linguistics*, 6-2, 323-336. In this paper six different types of adverbials, which, of course, don't cover all kinds of adverbials, a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distinctive grammatical functions and semantic roles. Type I, called IP-adjoined adverbials, consists mainly of the items of common emphaziers which function as sentence adjuncts expressing the comment that what is being said is true as well as conveying speaker's assertion that his words are true. Type II, called I'-adjoined adverbials, covers all kinds of subject-oriented adverbials. This type of adverbials show a certain relationship to the subject by the paraphrase, in which their adjective bases are used to express the subject's intention or willingness or the reverse. Type III, called V"-adjoined adverbials, is needed when more than one adverbials cooccur in the same clause. Type III is hierarchically higher than Type IV, VP-dominated adverbials, and can move into the clause initial position more freely than Type IV. Type V, called V'-adjoined adverbials, is concerned with object-oriented adverbials. This type of adverbials is not subcategorized by the matrix verb but functions as a quasi-complement of the object concerned. Type VI, called V'-dominated adverbials, must be subcategorized by the verbs which denote 'owning' or 'placing'. (Seokang College)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영어의 부사(구)들이 자신을 포함한 절과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에 있다.

Quirk et al.(1985)에 따르면, 영어에는 거의 일만여 개 이상의 부사류(adverbial)가 존재하며, 문장에서 이들은 단일 어휘의 부사 뿐 아니라, 부사구, 전치사구, 명사, 시제 절(finite clause), 비시제 절(nonfinite clause) 등의 여러 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부사류 중에서 극히 일부 부사(구)에 대해,

절에서의 분포, 의미 역할 및 문법적 기능, 같은 절 내에 둘 이상의 출연에 따른 특성과 제약 등에 따라, 여섯 종류의 종속관계의 부사(구)로 나눌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본 론

### 2.1. 문부가어구와 서술부가어구

대체로 부사(구)는 문장에 의무적(obligatory)이기 보다는 수의적(optional)인 요소라고 보지만 다음 (1)과 (2)의 부사(구)는 의무적인 요소임을 보인다.

(1)은 비록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subcategorize) 되지는 않을지라도 부사(구)가 출연하지 않으면 비문법적이다.

- (1) a. He lived in Chicago.
- b. Their house faces towards the sea. He looked me in the eye.
- c. They have a cottage for sale.
- d. He put the point well.
- e. He looked me in the eye.
- f. You will find the sugar where the coffee is.

그러나 (2)는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어 반드시 부사(구)가 출연하는 경우이다.

- (2) a. She put the money into her purse.
- b. She placed a curiously ornate vase before me.
- c. My father kept me in bed.
- d. He parked his car in the garage.

(1)과 (2)의 부사(구)는 문두로 이동될 때 모두 비문법적이다.

다음 (3)에서의 부사(구)는 수의적이고, (3a)와 (3b)의 두 문장이 겹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4)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구)가 문두로 이동하거나, (5)와 (6)에서처럼 두 부사(구)가 동시에 출연하면 문법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 (3) a. She kissed her mother on the cheek.  
b. She kissed her mother on the platform.
- (4) a. ?On the cheek, she kissed her mother.  
b. On the platform, she kissed her mother.
- (5) a. She kissed her mother on the cheek on the platform.  
b. ?\*She kissed her mother on the platform on the cheek.
- (6) a. On the platform she kissed her mother on the cheek.  
b. ?\*On the cheek she kissed her mother on the platform.

(4)-(6)의 사실에서 우리는 문장의 말미에 나타난 (3a)와 (3b)의 부사(구)가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속관계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4)는 (3a)의 부사(구)가 (3b)의 부사(구) 보다 나머지 문장에 더 자유롭지 못함을 보이며, 비록 (3a)와 (3b)에서처럼 모두 문장의 말미에 나타날지라도, (5)에서처럼 동시에 나타날 경우, 반드시 (3a)의 부사(구)가 (3b)를 선행한다는 사실은 이들 사이에 구조적 계층(structural hierarchy)이 있음을 보인다. (6)에서 알 수 있듯이, 계층상 상위의 부사(구)가 문두로의 이동에 더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문두로의 이동에 제한적일수록 그 부사(구)는 자신이 속한 절에 종속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7)과 같은 등위절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서술부가어구는, 등위절의 경우, 문장의 말미에 출연하여 자신이 속한 절에 종속되는 반면, 문장부가어구는 문두에 출연하여 등위절 전체를 한정한다.

- (7) a. He travelled a great deal and eventually settled down in Australia.  
b. In Australia, He travelled a greate deal and eventually settled down.

(7a)에서 In Australia는 등위절의 후반에만 관련될 뿐이고, (7b)에서는 등위절 전반과 후반 모두에 관련된다.

그러나 (1)-(3)의 부사(구)는 모두 의문(question)과 부정(negation)의 범위(scope)에 든다.

- (8) a. Did he live in Chicago?  
       b. Did he look me in the eye?  
       c. Do they have a cottage for sale?
- (9) a. Did she put the money into her purse?  
       b. Did she place a curiously ornate vase before me?
- (10) a. Did she kiss her mother on the cheek?  
        b. Did she kiss her mother on the platform?
- (11) a. He didn't live in Chicago.  
        b. He didn't look me in the eye.
- (12) a. She didn't put the money into her purse.  
        b. She didn't place a curiously ornate vase before me.
- (13) a. She didn't kiss her mother on the cheek.  
        b. She didn't kiss her mother on the platform.

의문문과 부정이 문장(IP)에 관련한 문법적 검증 기제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1) -(3)의 부사(구)들은 IP 영역 내의 서술부가어구(predicational adjuncts)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과 (2)의 의무적인 부사(구)와, (3)의 수의적인 부사(구)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a)와 (1b)의 부사(구)와 (3b)의 부사(구)를 V''-부가 부사(구)(V''-adjoined adverb phrase), (2)의 부사(구)를 V'-관할 부사(구)(V'-dominated adverb phrase), (1c)-(1f)의 부사(구)를 V'-부가 부사(구)(V'-adjoined adverb phrase), 그리고 (3a)의 부사(구)를 V''-관할 부사(구)(V''-dominated adverb phrase)라 부르기로 하겠다.<sup>1</sup>

한편 의문이나 부정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즉 IP 영역 밖의 부사(구)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4) a. I really don't know him.  
        b. They definitely didn't want it.  
        c. They obviously didn't understand it.  
        d. They probably can't find their way here.

---

1. 결국 서술부가어구인 부사(구)는 V'-관할, V'-부가, V''-관할, V''-부가, 등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하계된 구체적인 논의는 1.1부분을 참조.

- (15) a. Seriously, do you believe in ghost?
- b. Surprisingly, did he pass the course?
- c. Sadly, did the storm destroy the entire tobacco crop?
- d. Frankly, are you tired?

(14)-(15)에서의 부사(구)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타나거나, 문두에 출연한다. 다음 (16)을 (14)와 비교하면 의미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a. I don't really know him.
- b. They didn't definitely want it.
- c. They didn't obviously understand it.
- d. \*They can't probably find their way here.

(16a), (16b), (16c)의 부사(구)는 모두 부정의 범위에 든 해석을 가지나, (16d)의 'probably'는 부정의 범위에 든 해석을 아예 가질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14)의 부사(구)는 모두 문두로 이동할 수 있으나, (16)의 경우는 문두로 이동하면 의미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14)의 부사(구)는 자신을 제외한 문장 전체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러한 강조 부사(구)가 (16)에서처럼 부정의 범위에 들면 강조의 정도가 더 약해진다. 그러나 'probably'는 그의미 자체가 '약한 강조'이므로 부정의 범위에 들 때 의미전달에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서 (16d)는 비문법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4a)와 (16a)는 다음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를 가진다.

- (14)' a. The real truth is **that I don't** know him.  
      (= I don't know him at all.)
- (16)' a. It is not the real **truth that I** know him.  
      (= I don't know him well.)

(16)의 부사(구)는 IP 영역 안에 든 부사(구)이어서 당연히 의문문이나 명령문을 형성할 수 있다.

- (17) a. Do they really want him to be elected?
- b. Do they definitely reject his proposal?
- (18) a. Make an effort this time; but really make an effort.
- b. Definitely buy one now.

또한 (15)와 다음 (19)를 비교하면 부사(구)의 위치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9) a. Do you seriously believe in ghost?
- b. \*Did he surprisingly pass the course?
- c. \*Did the storm destroy the entire tobacco crop
- d. \*Are you frankly tired?

(19a)가 문법적인 것은 (15a)와는 다른 해석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명령문에서도 볼 수 있다.

- (20) a. \*Seriously, don't believe in ghost!
- b. Don't seriously believe in ghost!

(15a)의 부사(구)는 IP 영역 밖의 문부가어구(sentence adjuncts)임에 반하여, (19a)의 부사(구)는 서술부가어구의 예이다. 문두에 위치한 부사(구)는 IP 영역 밖의 문부가어구이고 부정의 범위에 들지 않으며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불가능하다.

서술부가어구인 부사(구)는 자신이 속한 절에 종속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복문의 경우 의미차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 (21) a. He seriously urged that you believed in ghost.
- b. He suddenly said that the driver started the engine.
- (22) a. He urged that you believed in ghost seriously.
- b. He said that the driver started the engine suddenly.

문부가어구인 부사(구)와 서술부가어구인 부사(구)는 다음과 같은 초점(focus) 구조를 나타내는 분열문(cleft construction)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 (23) a. \*It is frankly that you are tired.  
 b. \*It is sadly that the storm destroyed the entire tobacco crop.
- (24) a. It was suddenly that the driver started the engine.  
 b. It is seriously that you believe in ghost.

(24)가 문법적인 것은 초점받은 부사(구)가 서술부가어구로서의 의미해석을 가지기 때문이며 만일 문부가어구의 해석을 받는다면 (25)와 같이 비문법적이다. 이는 it \_\_\_\_ that 사이의 'be'동사의 시제를 보면 알 수 있다.

- (25) a. \*It is suddenly that the driver started the engine.  
 b. \*It is seriously that you believe in ghost.

서술부가어구인 부사(구)는 IP 영역 안의 부사(구)이기 때문에 (24)와 같이 'be'동사의 시제가 'that' 절의 시제와 일치하나, 문부가어구인 부사(구)는 IP 영역 밖의 부사(구)이기 때문에 (25)와 같이 'be'동사의 시제가 항상 현재형일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보여준 바의 의미적, 문법적 사실을 고려하여 문부가어구인

부사(구)를 IP-부가 부사(구)(IP-*adjoined* adverb phrase)라 부르고자 한다.

문부가어구인 부사(구)와 서술부가어구인 부사(구)를 구분할 수 있는 검증 기제로 다음의 'do so' 대치를 적용해 볼 수 있다.

- (26) a. \*Personally, I find the music too arid, and so does he.  
 b. Fred cleaned his teeth carefully and so did Mary.

(26a)의 'so does he'에 문부가어구인 부사 'Personally'가 포함되지 않으나, (26b)의 'so did Mary'에는 서술부가어구인 부사 'carefully'가 포함되는 해석을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IP 영역 안의 부사(구)인지 아니면 IP 영역 밖의 부사(구)인지를 구별하고자 부정의 범위, 외문문 및 명령문의 형성, 문두로의 이동 가능성, 'do so' 대치 구문, 분열문 구성, 등의 문법적 장치들을 적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문법적 장치에 검증되어 문법적인 경우의 부사(구)는 서술부가어구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부사(구)는 문부가어구이다.

## 2.2 .주어지향적 부사(구)와 목적어지향적 부사(구)

다음은 주로 부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기초하여 절에 대한 종속관계를 고찰하여 위에서의 구분을 보강해 보기로 하겠다. 어떤 부사(구)는 인접한 주어와 목적어와 어떤 서술관계를 보이기 위해 쓰인다.

다음 (27)과 (28)은 각각 주어지향적 부사(구)(subject-oriented adverb)와 목적어지향적 부사(구)(object-oriented adverb)의 예이다.

- (27) a. Casually, Leslie greeted the stranger.  
 b. With great pride, he accepted the award.  
 c. Consistently, she overruled the lawyer's objections.  
 d. Bitterly, he buried his children.  
 e. With great reluctance, she called the police to arrest her guest.
- (28) a. I put my car in the garage.  
 b. I expect a leak in that pipe.  
 c. He suggested a picnic on the island.  
 d. I kept my document in the attic.  
 e. They are planning a meeting at my house.

(27)의 예들을 말바꿈(paraphrase)하면 다음 (29)와 같다.

- (29) a. Leslie was casual, offhand, when he greeted the stranger.  
 b. He was very proud to accept the award.  
 c. She was consistent when she overruled the lawyer's objections.  
 d. He was bitter when he buried his children.  
 e. Though she was very reluctant to do so, she called the police...

(27)의 부사(구)들은 대체로 문두에 위치하고 있으며 쉼표를 동반한다. (29)에서 보여주듯이 주어에 대한 서술형용사에서 비롯하고 있다. 만일 주어가 사람이 아닌, 즉 [-Human]인 명사구가 나타날 경우 다음 (30)과 같이 비문법적이다. <sup>2</sup>

---

2. 다음과 같은 수동구문에서도 문법적이기 위해서는 행동주(agent)가 반드시



- (30) a. \*Reluctantly, the avalanche destroyed the chalet.  
 b. \*Consistently, the water kept boiling.

또한 이들 부사(구)가 문두가 아니라 문장 중에 위치할 경우, (29)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27a), (27d)와 다음 (31), (32)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 (31) Leslie greeted the stranger casually.  
 (32) a. He spoke bitterly about the treatment he received.  
 b. He regretted their departure bitterly.

(31)의 'casually'는 'in a casual offhand manner'의 의미이고, (32a)의 'bitterly'는 'He spoke in a bitter way....'의 의미이며, (32b)의 'bitterly'는 'He very much regretted ...'의 의미로서 서술부가어구인 부사(구)의 용법이다. 이들은 위에서 고찰한 바대로 모두 부정의 범위에 들며, 의문문, 명령문, 분열문, 'do so' 대치 구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지향적 부사(구)는 부정문을 선행하지 못하며, 명령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예를 보자.<sup>3</sup>

- (33) a. \*Sadly, she didn't wander through the library.  
 b. \*Proudly, he didn't accept the award.  
 c. \*With great unease, nobody elected him as a leader.  
 d. \*Casually, Leslie didn't greet the stranger.  
 (34) a. \*Uneasily elect him as your leader.  
 b. \*Sadly tell them about it.

---

[+Human]이어야 한다. The chalet was reluctantly destroyed (by the developers). (cf. The chalet was reluctantly destroyed (\*by the avalanche))

3. (33a)와 (15c)의 'Sadly'는 모두 문두에 출연하여, 언뜻 유사하게 보이나, 전자는 주어지향적 부사(구)로서 'She was sad when. . .'의 의미로 비문법적이다. 반면 후자는 문장부사로서 'It was sad that the storm. . .'의 의미이다.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전자는 I'-부가 부사(구)이고, 후자는 IP-부가 부사(구)이다. 또한 (34)가 비문법적인 것은 아마도 주어지향적 부사(구)가 명령문의 생략된 주어와 서술관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주어지향적 부사는 분열문에 나타날 때 주어지향적인 의미를 상실한다.<sup>4</sup>

- (35) a. \*It was carefully that he cleaned his teeth.
- b. \*It was deliberately that he misled us.
- c. \*It was consistently that she has overruled the lawyer's objections.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논의한 IP-부가 부사(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주어지향적 부사(구)는 반드시 문두에만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나타난다.

- (36) a. He carefully cleaned his teeth.
- b. He deliberately misled us.
- c. She has consistently overruled the lawyer's objections.

(36)의 부사(구)는 (37)과 같이 'do so' 대치 구문이 가능하다.

- (37) a. He carefully cleaned his teeth, and so did she.
- b. He deliberately misled us, and so did she.
- c. She has consistently overruled the lawyer's objections and so has her colleague.

(37)의 'do so' 대치 구문에는 모두 주어지향적 부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36)은 모두 의문문이 가능하다.

- (38) a. Did he carefully clean his teeth?
- b. Did he deliberately mislead us?
- c. Has she consistently overruled the lawyer's objections?

주어지향적 부사(구)는 (33)-(35)에서는 IP 영역 밖의 현상을 보이지만, (36)이나 (37)은 IP 영역 안의 현상이다. 따라서 이들 부사(구)는 IP-부가

---

4. Quirk et al.(1985: 574)에 따르면, (35)의 분열문에 나타난 부사(구)는 주어지향적이기 보다는 서술부가어구의 하나인 방법(manner)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부사(구), 혹은 V"-부가 부사(구) 어느 한쪽으로 간주하기에는 똑같은 부담이 따른다. 본고에서는 이들 부사(구)는 본래 (36)에서와 같이 주어와 동사 사이 I'에 부가되어 출연하며, (27)과 같은 경우는 문두로 이동한 결과라고 가정하기로 한다.<sup>5</sup>

다음은 목적어지향적 부사(구) (28)을 보기로 하자.

- (28) a. I put my car in the garage.  
 b. I expect a leak in that pipe.  
 c. He suggested a picnic on the island.  
 d. I kept my document in the attic.  
 e. They are planning a meeting at my house.

(28)의 부사(구)는 주로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를 동반한 구의 형태이다. 물론 장소 부사인 *there, here, somewhere* 등으로 말바꿈할 수도 있다. 목적어지향적 부사(구)는 위의 (2)에서 논의하였듯이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8)에서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는 것들은 (28a), (28d)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28b), (28c), 및 (28e) 뿐 아니라 다음 (39)도 있다.

---

5. 주어지향적 부사(구)는 McNulty(1988)의 상황부가어구(circumstantial adjuncts) AP와 아주 유사하다. (예; *John left angry*) McNulty의 논의에 따라 손속자(1990)도 상황부가어구는 V"에 부가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예문에서 보인 바대로 'angry'는 문미에 나타난다. 만일 주어지향적 부사(구)를 V"에 부가시킨다면, 이들 부사(구) 역시 문미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문미에 나타난 경우는 주어지향적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I'-부가를 가정해 보았지만 더욱 연구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I'-관할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이들 부사(구)가 (27)에서와 같이 문두로 이동될 경우 IP에 관할시킬 것인지 아니면 IP에 부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IP-부가 부사(구)도 주어지향적 부사(구)처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출연하고 문두로의 이동이 역시 자유롭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나, 본고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IP 영역의 문법적 검증에 있어서 더 확실하므로 IP-부가 부사(구)는 본래 문두에 위치하고 주어와 동사 사이로 이동할 수 있으며, 후자는 주어와 동사 사이의 I' 위치에서 문두로 이동하면 IP에 관할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의 (15c)와 (33a)를 비교하면 이러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일의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Nakajima(1982)는 V"에 관할시키고 있다.

- (39) a. He offered a barbecue nearby.  
 b. I like my dinner in the kitchen.  
 c. He enjoys tea on the lawn.  
 d. The doctor advised a few dates off work.  
 e. We ought to condemn such activities here.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는 목적어지향적 부사(구)는 의무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동사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주로 “소유”(owning)의 의미를 가진 ‘have’, ‘keep’ 아니면 “놓음”(placing)의 의미를 가진 ‘put’, ‘park’, ‘shelter’, ‘place’ 등이 있다.

이러한 동사는 대체로 장소의 의미를 가진 낱말 혹은 구(절)을 하위범주로 선택함을 추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술부가어구를 V'-관할 부사(구)라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비록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는 않을지라도 (28b), (28c), (28e), 및 (39)의 목적어지향적 부사(구)는 준의무적인 요소이다. 이는 마치 다음 (40)의 결과부가어구(resultative adjuncts)와 유사하다.<sup>6</sup>

- (40) a. John painted the house red.  
 b. Mary hammered the metal flat.  
 c. Sue picked the bone clean.  
 d. Bill washed the clothes white.

(40)의 동사들도 결과부가어구를 하위범주화 하여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목적보어(quasi-object complement) 구실을 하고 있다. (40)의 결과부가어가가 문장 구조상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손숙자(1990)에 따라, 동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위범주화 되지않은 목적어지향적 부사(구)를 V'-부가 부사(구)(V'-adjoined adverb phrase)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V'-부가 부사(구)가 만일 문두로 이동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받거나 비문법적인 문장

---

6. 결과부가어구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소문(small clause)과 연관지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결과부가어구를 V'에 관할시키고 동사와 묶어 복합동사(complex verb)로 재분석(reanalysis)하자는 제안도 있다.(cf. Chomsky(1981, 1986), Stowell(1981, 1983, 1987), Williams(1975, 1980, 1983, 1984), 김영현(1992))

이 도출된다. 다음 (41)을 보자.

- (41) a. At my house, they are planning a meeting.  
 b. Here we ought to condemn such activities.  
 c. On the lawn, he enjoys the tea.  
 d. \*Off work the doctor advised a few days.

### 3.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i) 주어지향적 부사(구)는 본래의 위치가 I'-부가 부사(구)이며, 자유로이 문두로 이동한다.

(ii) 목적어지향적 부사(구)는 동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위 범주화되는 경우 V'-관할 부사(구)이고, 준의무적인 경우는 V'-부가 부사(구)이다. 이들은 모두 문두로 이동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비문법적이 된다.

(iii) V"-부가어구의 부사(구)는 장소나 시간 등의 같은 종류의 부사(구)들이 동시에 출연할 때 문두로 별 제약없이 이동되는 부사(구)로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부사(구)들이 동시에 출연할 경우 문장의 말미에 위치하고 있다.

(iv) V"-관할 부사(구)는 V"-부가어구 앞에 나타난다.

(v) IP-부가 부사(구)는 대체로 문두에 나타나며, 다음 (vi)의 어떤 문법적 검증에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

(vi) (i)-(v)의 부사(구) 사이의 구분에는 부정의 범위, 분열문, 의문문, 명령문, 문두로의 이동, 'do so' 대치 구문, 및 하위범주화 등의 문법적 검증 장치를 적용하였다.

### 참 고 문 헌

김영현. 1992. "영어 보문소절 IP 범주구조 분석", 언어 제17권 1호, 한국언어학회.

- 손숙자. 1990. 국어의 부가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McNulty, E. M. 1988. The Syntax of Adjunct Predicate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Nakajima, H. 1982. "The V4 System and Bounding Category", *Linguistic Analysis* 9, 341-378.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85.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ial Dissertation, MIT.
- Stowell, T. 1983. "Subjects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285-312.
- Stowell, T. 1987. "Small Clause Restructuring", Ms. UCLA.
- Williams, E. 1975. "Small Clause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4, 249-273, Academic Press, New York.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
- Williams, E. 1983. "Against Small Clauses", *Linguistic Inquiry* 14, 287-308.
- Williams, E. 1984. "There-Insertion", *Linguistic Inquiry* 15, 131-153.

500-742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789-1

서강정보대학 교양과

Fax: +82-62-52-5070